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 문화재 가치 되새기다



항학주의 제주살이 (51)

22-24일 제주목 관아 일원서 공연·전시·체험... 종합축제로 렉처 콘서트로 만나는 문화재 전승자 토크 콘서트·투어도

수 있는 무형문화재 종합 축제로 꾸러진다.

기존 도내 무형문화재 행사와 달리 국내외의 다양한 무형유산(판소리(대구), 북청사자놀음(서울), 서도소리(평안도 및 황해도), 가사(대한민국 전역), 플라멩코(아르헨티나), 탱고(스페인))를 초청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도내 무형유산 역량을 도외로 확장하기 위한 시도도 이뤄진다.

기념식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입장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22일 오후 6시 제주목 관아 메인무대에서 개최된다.

제주의 무형문화재를 만날 수 있

는 특별공연 '이어이어라, 이어도 이어'는 23일 오후 4시와 24일 오후 2시 조선시대 신목사의 도입 행차와 순력행차 테마극으로 렉처 콘서트 형태로 진행된다.

전통주와 전통 복식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도 예정돼 있다.

토크콘서트에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과 함께 김진경 소장(배지근 연구소), 부경철 대표(이시보양조장), 박린준 디자이너(해녀복 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무형유산의 전승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무형문화재 전문가의 해설로 진행되는 투어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자

(2회 운영, 회당 30명)에 한해 운영된다. 관덕정에서 출발해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과 갓전수교육관, 성읍 고소리굴 공방을 둘러보고 다시 제주목 관아로 돌아오는 코스다. 선다리 만들기 등 체험도 포함돼 있으며, 신청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변덕승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을 이어가는 전승자들이 전통문화 수호자로 자부심을 느끼도록 격려하는 한편 도민은 잘 모르고 있던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이 오는 22-24일 사흘간 제주목 관아와 도내 일원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숨결, 손결, 연결'이란 주제로 펼쳐지는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은 도내에서 전승되는 무형문화재의 공연, 전시, 체험 등을 두루 만날

해녀와 함께

동년배 해녀 친구가 한 명 있다. 어느 해 허영선 시인이 시집 '해녀들'을 내고 늙은 해녀와 약속이 있다고 해서 동북 해안가에 함께 간 적이 있다. 그때 만난 해녀의 모습과 그 자리에서 들었던 해녀의 노래에 흠뻑 빠진 나는 그 후 사용하지 않는 해녀를 달고 살지만 바다를 좇아 다른 곳에 바다의 여인, 해녀의 늙은 시간이 와 있다. 그녀는 전 집을 드나들게 되었다. 동네 해녀인명사전 같은 걸 만들 때 거들며 알게 된 상군 해녀이다.

그녀의 집엔 바다를 볼 수 있는 낡은 나무 의자가 마당에 있고, 빨랫줄엔 빨래집게에 매달린 잠수복이 마르고 있다. 그 고무 옷 궁둥이에 고무풀로 동전만한 구멍을 때운 흔적이 있다. 초가를 벌이 말랑말랑해지는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 귀퉁이, 우리는 색깔이 예쁘게 마른 미역 냄새 감도는 제주의 가을 마당에 골판지를 깔고 앉았다.

아니한가. 감태밭 위를 유영하며 미소 짓는 늙은 해녀의 웃음은 해녀만이 알지 않을까. 바다와 살아야겠구나, 생각되던 젊은 시절엔 돈 나올 데가 없어 바다에 들어갔지만 요즘은 바다가 정답이라고 한다. 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은 술한 시간을 넘기고

나자 여기가 내가 살 곳이었고 살 만한 곳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세월이 휘젓고 떠나간 그 뒤편에서 호이호이 하는 숨비소리가 듣고 싶어 바다에 나가지 않고는 못 배기는 늙은 해녀에게 가장 은혜로운 대상은 바다이며 바다의 여신이라고 했다.

관도 수도도 없이 물질하던 잠수복 차림 그대로 저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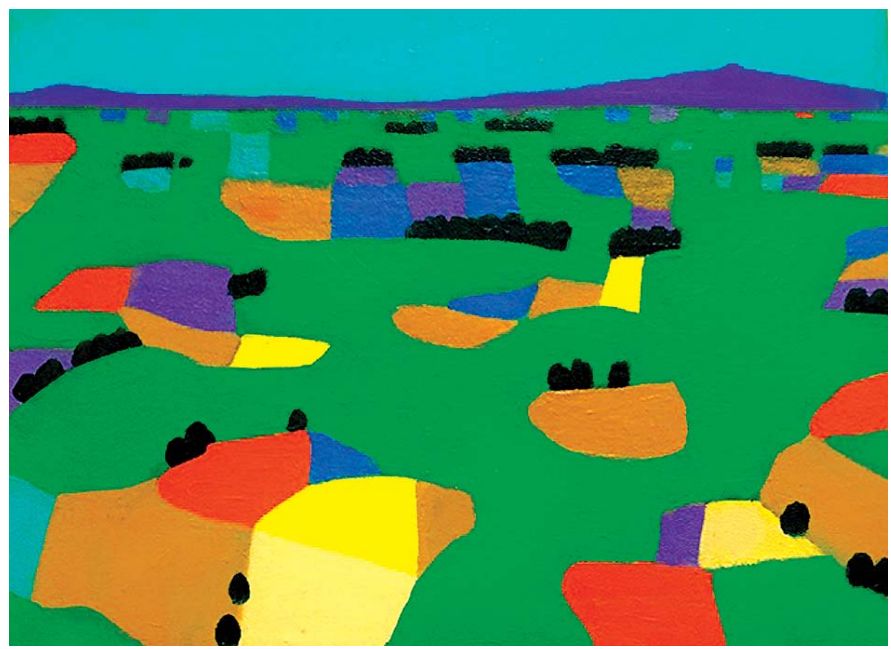
옮겨가 돌아오지 않는 해녀도 여럿 봤지만, 그래도 바다에 가면 모든 걸 잊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일곱 살 때 물질을 배워 60년을 바닷속에 드나들었으니 머릿속은 늘 뱅글뱅글 레코드판 돌아가는 것처럼 어지럽고 두통을 달고 살지만 바다를 좇아 다른 곳에 바다의 여인, 해녀의 늙은 시간이 와 있다. 그녀는 전 집을 드나들게 되었다. 동네 해녀인명사전 같은 걸 만들 때 거들며 알게 된 상군 해녀이다.

그녀의 집엔 바다를 볼 수 있는 낡은 나무 의자가 마당에 있고, 빨랫줄엔 빨래집게에 매달린 잠수복이 마르고 있다. 그 고무 옷 궁둥이에 고무풀로 동전만한 구멍을 때운 흔적이 있다. 초가를 벌이 말랑말랑해지는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 귀퉁이, 우리는 색깔이 예쁘게 마른 미역 냄새 감도는 제주의 가을 마당에 골판지를 깔고 앉았다.

아니한가. 감태밭 위를 유영하며 미소 짓는 늙은 해녀의 웃음은 해녀만이 알지 않을까. 바다와 살아야겠구나, 생각되던 젊은 시절엔 돈 나올 데가 없어 바다에 들어갔지만 요즘은 바다가 정답이라고 한다. 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은 술한 시간을 넘기고 나자 여기가 내가 살 곳이었고 살 만한 곳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세월이 휘젓고 떠나간 그 뒤편에서 호이호이 하는 숨비소리가 듣고 싶어 바다에 나가지 않고는 못 배기는 늙은 해녀에게 가장 은혜로운 대상은 바다이며 바다의 여신이라고 했다.

관도 수도도 없이 물질하던 잠수복 차림 그대로 저승으로

겹겹의 색이 품은 제주 자연



고민철 작 '한라의 꿈'22

고민철 개인전 '한라의 꿈' 10월 12일까지 갤러리 소이

제주 고민철 작가의 '한라의 꿈'전이 갤러리 소이(포도호텔 지하 1층)에서 열리고 있다. 그의 열세 번째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선 제주의 땅을 선과 면으로 단순화하며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 등 25점을 만날 수 있다.

작가는 "가시적 대상을 통해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을 재해석하여 면과 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작업의 원칙으로 삼는다"고 했다. 그리고 "여러 겹의 물감 층들은 배합 또는 병렬함으로써 얻게 되는 색채의 새로운 연관성이 감정과 기억들을 화면에 재구성한다"고 소개한다.

작가는 또 "형태의 유희와 겹겹이 구축된 색들이 지나간 날들의 기억들을 확장시키고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를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전시기간은 오는 10월 12일까지다. 오은지기자

서귀포항 밤빛과 함께 '서귀포문화재야행'

17-18일 칠십리아외공연장 등서... 16일엔 해녀문화축제

서귀포항을 배경으로 칠십리아외 공연장과 새연교 일원에서 야경을 감상하며 문화재를 체험하는 올해 2차 '서귀포문화재야행'이 펼쳐진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천지연유원지 일원에서 (사)제주마을문화진흥원이 마련한 1차 '서귀포문화재야행'이 열렸다.

서귀포문화재야행은 야경(夜景)·야로(夜路)·야사(夜史)·야화(夜畵)·야설(夜設)·야시(夜市)·야식(夜食)·야숙(夜宿) 등 8야(夜)를 주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차 서귀포문화재야행은 오는 17일엔 >지역으로 보는 서귀포문화재 야행 영상/신들의 향연 >카노

푸스 공연 >전통학생무예단 공연 >한·중 합동 무용공연 >전통국악 공연 >제2회 제주의 신 선별대회 >신들의 정원, 미술의 밤 서귀포가 운영된다. 올해 여주남한강영화제에서 수상한 다큐멘터리 '신들의 고향'도 상영된다.

이어 18일에는 >신들의 연희(패션쇼) >드림사운드 공연 >박다혜 공연단 공연 >소리계떼 공연과 올해 울산단편영화제 수상작

'추사 대평교회'를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아름다운 밤바다를 배경으로 길 위에서 만나는 신들을 비롯해 >달속의 이야기 >웹툰으로 보는 제주의 신 >탐라순력도 >서귀포 문인들의 시화전 등도 준비돼 있다.

서귀포문화재야행에 앞서 16일에는 해녀문화축제가 진행된다.

이날은 다양한 공연과 최근 양평힐링영화제에서 수상한 '할망바당' 영화상영을 비롯 명패, 캘리그라피, 태극만들기 등 체험행사도 풍성하다.

오은지기자eioh@ihalla.com

조천읍 어린이 미술대회 특별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스위스마을 내 위치한 아트랩와산이 '2022 조천읍 어린이 미술대회 특별전'을

오는 18일까지 열고 있다. 전시장에서 올해 조천읍 어린이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제주 동부권에서 처음 열린 어린이 미술대회 입상작과 입상작 100여점을 관람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전 품목 전기안전인증 전 품목 IP54, IP55 방진방수인증

(주)팜그린텍

<p>시설하우스 태풍피해 대비 제품</p> <p>환풍기(800W)</p> <p>환풍기 기능을 통해 비닐하우스내 내압을 높여 태풍으로부터 하우스 지지 및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강화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p>2022년 FTA 보조사업 품목</p>	<p>결상에 대비한 자동개폐기 전원자동변환 장치</p> <p>태풍 또는 기타 사유로 전원 정전(결상)시 자동개폐기 전원을 안정되게 공급하여 고온피해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 제10-2196685호 정전(결상)시 하우스개폐기 전원 자동변환 고온피해 예방 <p>2022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품목</p>	<p>하우스지킴이</p> <p>고온,저온 설정 범위 초과시 휴대용 알람기능 자동개폐기 전원자동변환 장치와 연동시 상변환 알람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5인까지 휴대용 알람등록 가능 	<p>2022년 FTA 보조사업 품목</p> <p>공기교반기(60W, 130W)</p> <p>교반기(60W투명) 교반기(130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 제10-2078975호 바람관 도출구로 인해 공기흐름 사리시대 최소화(특허) <p>상분리 제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2인 상분리 팬 제어 가능 자동, 수동 모드 온도, 시간 설정에 따른 제어 가능 	<p>송풍팬(60W, 130W)</p> <p>송풍팬(60W투명) 송풍팬(130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이프 재질로 고품격가 있어 안정적이고 깔끔한 송풍팬 사용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p>모터(60W, 130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 제10-2078975호 모터팬 사용으로 방습, 방진으로 부터 모터 2중 보호(특허)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	--	--	---	--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